

04

APRIL 2014 / ISSUE N° 65

JAPANESE

BOOK IN BOOK

LOTTE DUTY FREE 2014 NEW MODEL LINEUP

HELLO, 2014 LOTTE DFS MODELS

NEW MOVES

EXCLUSIVE SNAPS!

STYLING & MAKEUP SECRETS!

COMING SOON! 2014 LOTTE DFS NEW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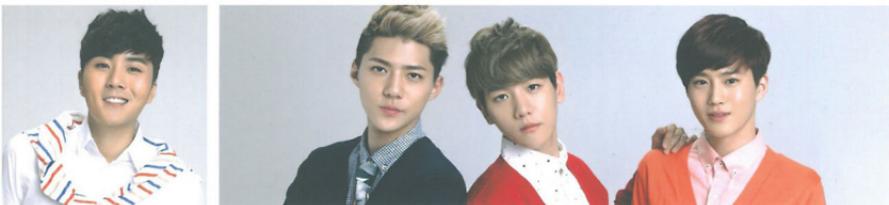
SPORTISM FOREVER

SPRING HAIR LOOK BOOK

글로 만나는 도슨트

読む展示ガイド

LOTTE
DUTY
FREE





ESQUEMA DEL MUNDO ESTRATIGRAFICO © DAMIAN ORTEGA 2018

1. 독특한 해체 작업과 개념미술로 세계 현대미술계가 주목하는 작가 다미안 오르테가(Damián Ortega)의 전시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열리는 남미 출신 작가의 전시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국내에선 폭스바겐의 뉴비틀을 세밀한 부품에서부터 차량의 동체에 이르는 각기 다른 부분을 분해해 공중에 설치한 작품 '우주의 사물(Cosmic Thing, 2002)'로 잘 알려져 있는데, 나치 정권에 의해 설립된 대표적인 회사의 차가이 멕시코 및 여타 개발도상국 내에서 생산되고 수출되는 현상을 풍자한 설치 작품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듬어지지 않은 비(非)미술적 재료를 가져오되 지질학에서 영감을 받은 그의 새로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2. 미술 작품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재료로 동시대가 지닌 문화 현상에 관해 이야기하는 그의 이번 전시는 콘크리트, 벽돌, 타일 같은 산업 재료로 만든 지층 등 좀 더 단순하면서도 추상적인 조각 작품을 대거 선보인다. 그중 지구를 형상화한 둥근 입체물인 '에스케마 델 문도 : 에스트라티그라피아스(Esquema del Mundo : Estratigrafías)'는 상영된 영의 재료를 한 겹씩 겹쳐서 제작한 후에 질라낸 단면을 통해 재료들의 겹겹의 의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3. 신문사에서 정치 인화를 그린 독특한 이력의 그는 익살스러운 다다이즘 작품에 풍자적인 기질을 고스란히 담아내었다. 오비제들이 내모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의미를 탐구해왔고 이와 같은 주제들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기법을 개발하고 일상적 재료를 세분화해 그만의 새롭고 도전적 방식의 작품 언어로 탈바꿈시켰다. 지질의 층위를 통한 세계관을 의미하는 제록처럼 겹겹이 쌓여 서로 엉켜 있는 이 작품은 현대 영거 있는 지구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재료에 관한 가치관을 어실히 보여주는 작품이다.
4. 일상적인 소재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갤러리 언어로 들어왔는지 들여다보며 그의 작품 언어를 상상해볼 것.
5. 갤러리로 들어온 일상의 층위.

전시 디렉터 전인경이 말하는 국제갤러리
 展示ディレクター チョン・ミンギョンが語る 国際ギャラリー

다미안 오르테가 개인전
 (Reading Landscape)
 Damian Ortega 개인展
 [Reading Landscape]

일상, 예술로 승화되다
 日常、芸術への昇華

1. 独特の解体作業と概念美術で世界現代美術界が注目を作家ダミアン・オル테가 (Damián Ortega)의 展示は、韓国初めの新米出身の作家展という点で興味深い。韓国ではフォルクスワーゲンのニュービートルを細かく部品から車両の胴体に至るまで、それぞれ異なる部分を分解して空中に設置した作品「宇宙の事物(Cosmic Thing, 2002)」で知られているが、ナチ政権により設立された代表的な会社の車両がメキシコやその他の発展途上国で生産され、輸出入されている現象を風刺する設置作品だ。今回の展示では日常でよく見られる適合性のない非美術的材料を地質学から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得た新しい作品を見ることが出来る。
2. 美術作品にはならないと思われる材料で、同時代が持つ文化現象を論ずる彼の今回の展示はコンクリート、レンガ、タイルといった産業素材で作られた地層など、やや単純ながらも抽象的な彫刻作品を多く扱っている。その中で地球を形象化した丸い立体的物である「[Esquema del Mundo Estratigrafías]」は、相当量の材料を一層ずつ重ねて製作した後、切り出した断面を通して材料の重なった意図を視覚的に見せる。
3. 新設社で政治風刺を描いていたという変わった経歴を持つ彼は、滑らかなダダイズム作品に諷刺的な気質をそのまま込めてきた。オブジェの内容に関する政治的、経済的、文化的意味を追求し、こうしたテーマを通して新しい方式の技法を開発し、日常の材料を細分化させて彼特有の斬新且つ排他的な手法での作品制作に投じた。地層の層位を通した世界観を意味する題名のように、幾層にも重なった層化されたこの作品は、一方から眺まると異なる地球の姿を同時に見ると同時に、彼の素材に関する高遠な見識が窺い見えてくる。
4. 日常の素材材がどのように、どんな姿でギャラリーに設置されたのか、覗いてみて彼の作品言語を想像してみたい。
5. ギャラリーに設置された日常の層位。

PERIOD	April 10 th - May 11 th
OPEN	10:00AM - 6:00PM (on Mondays - Saturdays) 10:00AM - 5:00PM (on Sundays & holidays)
ADMISSION	Free
ADDRESS	Kukje Gallery K3,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TEL.	02-735-8449